



미녀들의 예쁜 응원 2014 브라질월드컵 대한민국대 러시아 경기가 열린 18일 오전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미모의 여성이 나팔을 불며 응원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개성 넘치는 월드컵 응원

화려한 의상·태극 머리띠·각시탈 모양 등 다양한 응원도구 눈길

“응원도 개성시대. 똑같은 옷차림과 평범한 응원도구는 가라~”
18일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 단체 응원전이 펼쳐진 광주시 월드컵 경기장은 다양한 복장·도구로 응원에 참여한 시민들로 눈길을 끌었다.
우선, 예전 월드컵 응원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과감해졌다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경기장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대표팀 경

기 만큼이나 주변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한진선(여·29·서구 치평동)씨의 경우 새글을 흰히 드러낸 빨간색 '뿔뿔' 상의를 입고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다. 한씨가 응원을 펼칠 때마다 주변 뒷남성들의 시선이 쏠렸다. 한씨 친구도 어깨 한쪽을 드러낸 '원 슬더 슬리브리스' 셔츠로 경기장 응원 열기에 동참했다.
시민들이 각자의 개성을 연출해 들고 나

온 태극기는 이제 필수 응원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기업 홍보팀 직원 20명은 직접 만든 태극기 달린 머리띠를 착용하고 응원전에 나섰다. 대표팀이 역동적으로 움직일때마다 이들 머리위에 꽂힌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태극기도 좌우로 흔들렸다.
얼굴 일부를 치장한 페이스 페인팅 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도화지삼아 응원 메시지를 담은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

세월호 참사후 첫 민방위훈련

내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제394차 민방위훈련이 20일 오후 2시 화재대피와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주제로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다.
세월호 참사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민방위훈련에서는 전국규모 화재대피 훈련이 1975년 민방위가 창설된 이래 처음

실시된다.
민방위훈련은 20일 오후 2시 음성 훈련 경보로 시작돼 20분간 계속한다.
훈련은 화재대피훈련과 긴급차량 신속 출동 훈련,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접경지역에서는 민방공대피훈련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2년내 3번 적발땐 면허취소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도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

다.
일부 응원객은 자신의 몸에 태극 문양을 새기고 '16강'글자를 써넣는가 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페인팅으로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각시탈 모양의 탈을 쓰고 응원전에 가세한 시민들도 눈길을 끌었다. 여수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대호(28)씨는 마네킹에 띄우는 흰색 바탕에 검은 문양의 탈을 가져와 응원도구로 활용했다.
김씨는 “응원하려면 이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팀도 응원하면서 주변의 시선도 받으니, 일석이조 아니겠느냐”라며 “이젠 단체응원 때마다 어떤 도구로 눈길을 끌지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00:22
해짐 19:50 달짐 11:54

'연일 불볕 더위'

햇볕을 피해 천천히 걸어보세요.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9/31	보성	맑음	17/30
목포	맑음	18/26	순천	맑음	18/30
여수	맑음	19/26	영광	맑음	18/29
나주	맑음	18/31	진도	맑음	17/26
완도	맑음	18/29	전주	맑음	18/30
구례	맑음	17/32	군산	맑음	17/28
강진	맑음	18/30	남원	맑음	17/30
해남	맑음	17/30	흑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7/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북동	북동~동	0.5
남해	남서	북~북동	북동~동	0.5~1.0
남부	남서	북~북동	북동~동	0.5~1.0
서부	남서	북~북동	북동~동	0.5~1.0

생활지수

식중독	72
운동	4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06:55	12:04	19:18	00:00
	01:30	07:46	14:00	19:51

주간 날씨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19/30	21/26	21/26	21/27	20/28	20/29	21/30

당비대납 협의의 현직 도의원 징역 10월 구형

검찰,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인 비서관도 4년 구형

“몇 천 만원을 써서 도지사직을 살 수 있다는 욕심이 이번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측의 당비 대납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한 구형(求刑)을 하며 밝힌 발생 배경이다.
공주시청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8일 오전 공주시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측의 당비 대납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논고와 구형을 통해 ‘선거사범’ 단죄 의지를 드러냈다.

입했고 허위 진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총대’를 내세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5월이면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공무원이 될 것 같다” 등 피고인들 통신내역을 토대로 선거 후 공평상을 기대하는 실태를 꼬집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 한 달만에 당비대납 사건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별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고인의 행태도 지적했다.

서민석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선거 사범과 고소·고발로 입건되는 건수가 전국 1~2위를 다툰 정도로 많다”면서 “광주·전남 선거 풍토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또 “대의제는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기본 원칙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2만여명의 당비 4500여만원의 대납했다”면서 “이는 전국 최대 규모 사건인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컴퓨터를 교체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수사에

관여 5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 또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명량역사체험마당

기간 | 2014년 6월 14일 ~ 8월 30일 매주 **토**일

장소 | 해남 우수영관광지 일원

내용 | 저잣거리체험행사, 우수영강강술래 공연

01- 저잣거리 체험행사

기간 | 2014년 6월 14일 ~ 8월 30일 매주 **토**일 13:00~18:00

장소 | 해남 우수영관광지 저잣거리 내

체험 내용

- 장군복입고 사진찍기
- 이순신 아록쓰기 및 탁본체험
- 거북선 등 그림그리기
- 신호연 만들기 및 날리기 체험
- 짚불공예 체험
- 조선시대 전통 대장간체험
- 옥공예 체험
- 향토음식점 운영 및 향토농산물 판매

02- 우수영강강술래 공연

기간 | 2014년 6월 28일, 7월 12일, 7월 19일, 7월 26일, 8월 9일, 8월 16일

시간 | 15:00~15:30

장소 | 해남 우수영관광지 성문 앞

체험 내용

- 우수영강강술래 시연
- 공연 후 관광객과 대동한마당

* 우천시 순연 또는 일요일 공연
* 수문장교대식은 명량(대첩)축제 기간 중 운영예정